도심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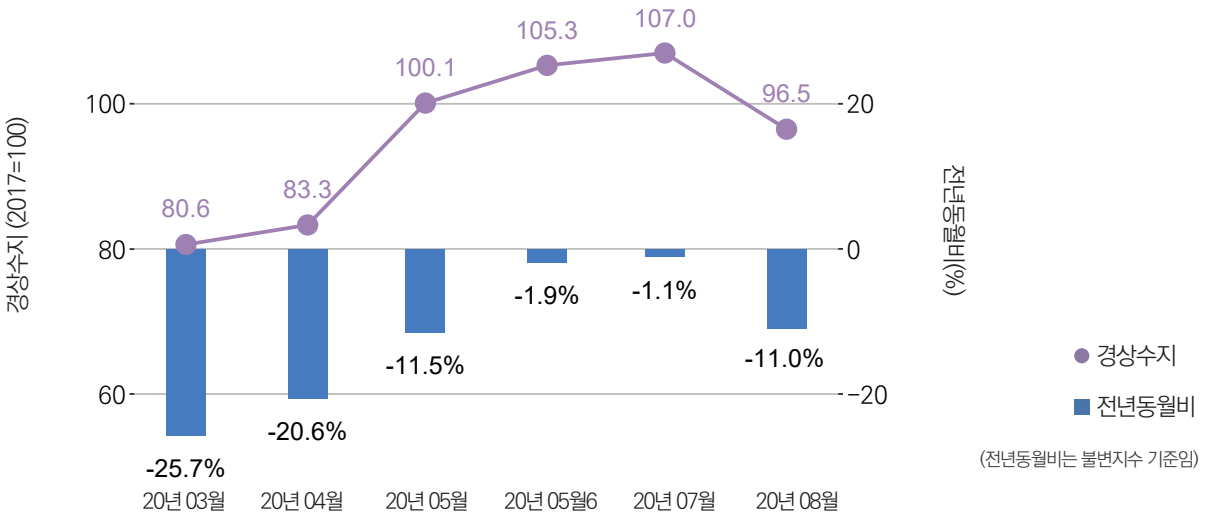
• 도심권 소비경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1.0% 감소

- 전년동월대비 -11.0% = 소매업의 기여도 +1.1%p + 숙박·음식점업의 기여도 -12.1%p
  (각 업종별 기여도= 각 업종별 기여율 × 소비경기지수 증감률, 소비경기의 증감률은 업종별 기여도의 총합
  ※ 관련 설명은 부록의 '기여도' 참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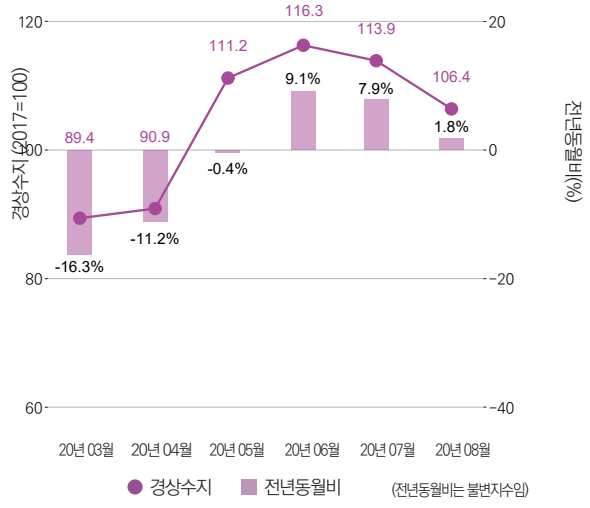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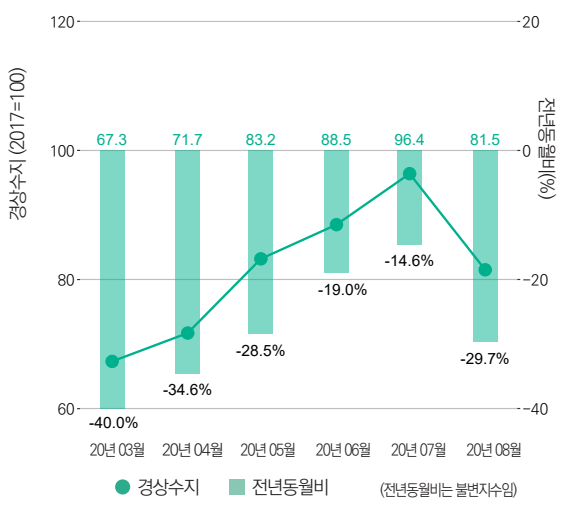
• 전년동월대비 소매업 1.8% 증가, 숙박·음식점업 29.7% 감소

- 도심권은 지난 3개월(6~8월) 동안 소매업 소비는 가장 활성화 된 반면 숙박·음식점업은 가장 심한 부진을 나타내는 양극단 현상 발생. 무점포소매 매출이 큰 폭 증가했지만, 의복·섬유·신발, 종합소매, 가전제품·정보통신 등 소매업에 속하는 나머지 전 업종이 감소하며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증가폭은 둔화
  · 8월 소비증가 업종은 무점포소매, 연료 순
  · 8월 소비감소 업종은 의복섬유신발, 가전제품정보통신, 기타상품, 음식료품, 기타가정용품, 종합소매 등
- 숙박·음식점업은 음식점과 주점·커피전문점 업종의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며 내림폭 커져
  · 8월 소비증가 업종 없이 숙박, 음식점, 주점·커피점문점 등의 순으로 세부 업종 모두 감소

| 도심권 소비경기지수 |



| 도심권 소매업 경기지수 |



| 도심권 숙박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 |